

최행귀의 <普賢十願頌> 연구*

- <보현십원가>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김기종**

<차 례>

1. 머리말
2. 漢譯의 양상과 특징
3. 노랫말의 배제와 <普賢十願頌>의 성격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선행연구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존 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보현십원가> 漢譯의 양상과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현십원송>은 기본적으로 <보현십원가>의 구성과 내용을 따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부처만을 노래하고 있는 향가와 달리 ‘보살’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覺帝·醫王’ ‘聖·賢’ 등과 같이 부처와 보살을 위계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丹衷’·‘至心’ 등의 시어를 통해 고해에서 벗어날 것을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고해를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분별 초월의 역설적 표현 및 ‘부처의 일’과 관련된 노랫말들을 모두 삭제한 뒤, “한결같은 마음으로 쉽 없이 외운다면/ 보현보살의 자비심을 따라 배울 수 있으리”라는 시행으로 작품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61-A00008).

** 동국대학교

전체를 끝맺고 있다.

그 결과, <보현십원송>은 내용 및 표현뿐만 아니라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보현십원가>와 차이를 보인다. <보현십원가>가 청자들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면, <보현십원송>은 독자들이 보살의 길을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보현십원송>은 <보현십원가>와 다른 별개의 작품인 것이다.

핵심어 : 보현십원송, 보현십원가, 최행귀, 균여, 향가, 한역시

1. 머리말

<普賢十願歌>는 고려 광종대의 고승인 균여(923~973)가 창작한 11수의 향가로, 『화엄경』 「보현행원품」 소재 ‘普賢十種願王’의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 이 향가는 『균여전』 ‘제7 歌行化世分者’에 균여의 서문과 함께 실려 있는데, ‘제8 譯歌現德分者’에는 ‘翰林學士’ 최행귀가 번역한 7언 律詩의 <普賢十願頌> 11수 및 그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최행귀의 서문과 漢譯詩는 연구의 초창기부터 <보현십원가> 못지않게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자는 摩訶詞文則 등의 향가 작가, 형식 용어인 ‘三句六名’, 노래와 시의 관계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소위 10구체 향가의 유일한 번역시이고, 고려 전기 한시문학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 등에서, 한국문학사 서술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사적 의의에 비해, <보현십원송>의 문학적 연구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물론 漢譯의 양상 내지 <보현십원가>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근래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¹⁾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보현십원송>은 단순한 번역시가 아닌, 「보현행원품」과 <보현십원가>의 내용을 최행귀가 독자적으로 詩化한 작품으로, <보현십원가>에 비해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한역 양상의 파악에 있어서는 논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²⁾ <보현십원송>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게 된 이유 및 의미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먼저, 김상일은 <보현십원가>의 입장에서 <보현십원송>은 불성실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최행귀가 原歌에 불만을 느끼고 보충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譯者의 자의성을 의도적으로 개입시킨 결과라고 하였다.³⁾ 서철원의 경우는,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 및 표현이 한역의 과정에서 누락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최행귀의 한역 작업은 평이한 사상을 높은 시적 경지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보현십원가>의 체계를, 「보현행원품」 원문의 사상성 전달이라는 포교시 본연의 역할에 치중하려는 의도 하에 재구성한 산물”임을 주장하였다.⁴⁾

1) 국문학개론 및 국문학사에서의 단편적인 언급을 제외한, <보현십원송>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진, 「최행귀 譯詩 고찰」, 『동경어문논집』 1,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국어문학회, 1984; 정상균, 「최행귀론」, 『국어교육』 4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4; 김상일, 「<보현십원가>의 한역시 <보현십원송>에 대하여」, 『동악한문학논집』 9, 동악한문학회, 1999; 조연숙, 「최행귀의 한역시 연구」, 『고시가연구』 16, 한국고시가학회, 2005; 서철원, 「균여의 작가의식과 <보현십원가>」, 『한국고전문학의 방법론적 탐색과 소묘』, 역락, 2009; 김혜은, 「<보현십원가>의 譯詩 과정과 번역 의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정소연, 「<보현십원가>의 한역 양상 연구」,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2) 조연숙, 앞의 논문, 285~295쪽에서는, “(<보현십원송>의) 1~4구, 7~8구는 <보현십원가>의 뜻과 유사하나 그 표현에서는 독창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각 시의 5~6구는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시화하여, 그 뜻을 더욱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상일, 앞의 논문, 41~46쪽과 정소연, 앞의 논문, 104~110쪽에서는, 5~6구외에도 향가에 없는 내용이 한시에 있으며, 조연숙의 논의처럼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일률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김상일·서철원·정소연은 한역의 결과가 <보현십원가>와 가장 차이를 보이는 작품으로, 각각 <청전법륜송>·<수회공덕송>·<청불주세송>의 작품을 들고 있다.

3) 김상일, 앞의 논문, 47쪽.

4) 서철원, 앞의 논문, 182쪽.

정소연 또한 한역되지 않은 <보현십원가>의 노랫말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역시에서 삭제된 노랫말의 공통점으로 ‘나와 남의 관계’와 관련된 표현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향가에 나오는 ‘나와 너’의 관계와 한역시에서 결과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나’에게로의 집중은, 부르는 노래와 읽는 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노래인 향가는 공동체적 향유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르는 ‘나’와 더불어 듣는 ‘너와 우리’를 포함한 것이고, 한역시는 눈으로 읽거나 음영하는 사람이 그 자신에게 말을 걸고 돌아보며 수행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

그런데 이상의 논의 결과는 작품의 실상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한역 과정에서 삭제된 노랫말인 <보개회향가>의 “아아, 예경하는 부처님도(病吟 礼爲白孫隱仏体刀)/ 나의 몸일 뿐 남 있으리(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는, ‘나와 남의 관계’가 아닌 ‘부처와 나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고, <수회공덕송>의 제4구인 “나와 남이 다르다고 어찌 말할 수 있으리(我邊寧有別人論)”는 논자의 주장과 달리, 나와 남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⁶⁾ 그리고 대중 독자를 배려한 노랫말로 제시된 <수회공덕가>의 “아아, 이리 여겨 가면(後句 伊羅擬可行等)/ 질투의 마음 이르러 올까(嫉妬叱心音至刀來去)”와, <보개회향가>의 “참회하던 惡業도(懺爲如乎仁惡寸業置)/ 법성 집의 보배라(法性叱宅阿叱寶良)” 등이 과연 교양 수준이 낮은 독자만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⁷⁾

5) 정소연, 앞의 논문, 116~117쪽.

6) 정소연, 앞의 논문, 115~116쪽에서, <보개회향가>는 ‘나와 남의 관계’로 끝맺고 있으며, <수회공덕송>의 제4구는 나와 남의 관계가 아닌, “나는 남과 다르지 않으니 어떻게 구별하겠는가”의 의미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개회향가>의 결구인 “예경하는 부처님도/ 나의 몸일 뿐 남 있으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예경의 대상이 되는 ‘부처’임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나와 남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회공덕송>의 제4구는 논자의 설명을 따른다고 해도 나와 남의 관계에 대한 내용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내가 남과 다르지 않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나와 남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7) 특히 서철원, 앞의 논문, 161쪽에서는 <수회공덕가>의 後句에 대해, “다른 존재의 공덕을 기뻐하라고 권면하며 ‘질투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부분은 그만큼 교양수준이 낮은 독자를 대상으로 한 탓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 대중을 독자로 간주했다는

한편, 독차층과 장르의 차이와 상관없이, <보현십원송>에서 배제된 <보현십원가>의 노랫말은 일정한 내용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현십원송>이 <보현십원가> 그대로를 漢譯하지 않은 이유뿐만 아니라, <보현십원송>의 문학적 성격을 해명하는 단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선행연구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존 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최행귀의 <보현십원가> 漢譯과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현십원송>에서 변용되거나 새로 추가된 부분을 중심으로 한역 양상의 특징적인 국면을 검토한 뒤, 한역 과정에서 배제된 노랫말의 내용적 경향성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노랫말의 변용 및 배제의 이유에 대한 해명을 통해, 최행귀의 작가의식 내지 <보현십원송>의 문학적 성격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본고의 이러한 논의는 <보현십원송>은 물론 <보현십원가>의 문학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漢譯의 양상과 특징

<보현십원송>은 기본적으로 <보현십원가>의 구성과 내용을 따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보현십원가>와의 관련 양상은 크게 수용, 변용, 창작 및 추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보현십원가> 한역의 양상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균여라는 사상가의 수준이 저급한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어학적 연구인 김지오, 「균여전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85~86쪽에서는, <수희공덕가>의 이 後句는 淸涼 澄觀의 『華嚴經行願品疏』에 나오는 해설인 “由昔不喜他善, 故今隨喜, 爲慶悅彼, 除嫉妬障, 起平等善.”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도표】 <普賢十願歌>와의 관련 양상

	禮敬	稱讚	供養	懺悔	隨喜	請法	請佛	佛學	恒順	廻向	總結
1구	○	×	○	×	△	×	○	○	○	○	○
2구	○	○	×	×	△	×	○	○	×	○	○
3구	○	○	×	△	△	×	×	×	×	△	△
4구	△	×	○	△	△	×	×	×	×	×	×
5구	×	×	×	×	×	△	△	×	△	×	×
6구	△	×	×	×	×	△	○	×	×	△	×
7구	○	○	△	○	○	△	×	△	△	×	△
8구	○	×	○	△	○	△	○	×	○	×	△

도표의 ‘○’ 표시는 <보현십원가>의 내용 및 표현을 수용한 것을, ‘△’는 내용 및 표현은 다르지만 향가에 대응되는 구절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 표시는 향가에 전혀 없는 내용 및 표현을 뜻하는데, 최행귀가 새로 지은 詩行 외에도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시화한 것을 포함한다. 곧 <광수공양송>(5~6구)·<참회업장송>(1~2구)·<수회공덕송>(5~6구)·<청불주세송>(3~4구)·<상수불학송>(3~6구)·<항순중생송>(2~4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시구는 향가에 없거나 그 표현이 달라진 「보현행원품」의 구절들을 시화한 것으로, <참회업장송>·<청불주세송>·<상수불학송>은 경문의 관련 구절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으며, 나머지 작품들은 약간의 변용을 가하고 있다.

위의 도표를 통해, <보현십원송> 11수는 한 작품도 향가를 그대로 번역한 예가 없고, 반대로 향가를 전혀 번역하지 않은 작품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보현십원가> 漢譯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징적인 국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1) 心未筆留 | 마음의 붓으로 |
| 慕呂白乎隱仙體前衣 | 그린 부처 앞에 |
| 拜內乎隱身萬隱 | 절하는 몸은 |

法界毛吡所只至去良
塵塵馬洛仏体叱刹亦
刹刹每如邀里白乎隱
法界滿賜隱仏体
九世盡良礼爲白齊
歎曰 身語意業无疲厭
此良夫作沙毛叱等耶

법계 두루 이르거라.
티끌 티끌마다 부처의 세계요
세계 세계마다 (보살들이) 둘러 피신
법계에 (가득) 차신 부처
구세 다하여 예경하고자.
아아, 신·어·의업에 지치거나 만족함 없이
이에 ‘부질[常]’ 삼으리라.⁸⁾

(2) 以心爲筆畫空王
瞻拜唯應遍十方
一一塵塵諸佛國
重重刹刹衆尊堂
見聞自覺多生遠
禮敬寧辭浩劫長
身體語言兼意業
捨無疲厭此爲常

마음으로 붓을 삼아 부처님을 그리고
우리러 절하니 시방세계에 두루 응하소서.
하나하나의 티끌마다 모두 부처님의 나라이고
겹겹의 세계마다 모두 보살의 집이네.
보고 들을수록 다생의 원대함을 깨달으니
예경함에 어찌 영겁의 세월을 사양하리.
신·어·의업의 삼업에
모두 지치거나 만족함 없이 항상 닦으리라.⁹⁾

위의 (1)과 (2)는 <보현십원가>·<보현십원송>의 제1수인 <예경제불가>와 <예경제불송>을 옮긴 것이다. <예경제불송>은 11수의 <보현십원송> 중에서 가장 ‘漢譯詩’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예경제불송>의 1~2구, 3~6구, 7~8구는 각각 <예경제불가>의 1~4행, 5~8행, 9~10행에 대응하고 있는데, <보현십원가>의 온전한 ‘한역’인 이 작품에서도, 原歌와 다른 표현 및 내용이 눈에 띈다.

먼저, 향가 제24행의 ‘佛體’·‘法界’의 노랫말이 <예경제불송>의 首聯에서 ‘空王’·‘十方’의 시어로 바뀌었고,¹⁰⁾ 頌聯에서는 향가에 없던 ‘諸佛國’과

8) 이 노래를 포함하여, 본고에서 제시하는 <보현십원가>의 현대어역은, 양주동, 『(增訂) 고가연구』, 일조각, 1983, 673~866쪽과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157~210쪽의 해독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의 성과인 박재민, 「구결로 본 보현십원가 해독」,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과 김지오, 앞의 논문의 해독을 참조한 것이다.

9) <보현십원송>의 번역은 최철·안대회 역주, 『역주 균여전』, 새문사, 1986, 65~73쪽과, 김상일, 앞의 논문, 49~59쪽을 참조하고, 필자가 부분적인 수정을 가한 것이다.

‘衆尊堂’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함련의 제4구는 <예경제불가>의 제6행을 변용한 것으로, ‘보살들’을 ‘衆尊’으로 표현한 뒤, “겹겹의 세계마다 모두 보살의 집”이라고 하여, 향가와 달리 ‘보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시구를 포함한 함련은 諸佛을 ‘나라’[國], 衆尊은 ‘집’[堂]과 연결시키고 있어, 부처와 보살의 관계를 位階的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살’의 표현과 ‘부처와 보살의 위계적 파악’은 <보현십원송>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 <칭찬여래송>의 ‘覺帝’·‘醫王’, <청전법륜송>의 ‘能人’·‘善友’, <청불주세송>·<항순중생송>의 ‘聖’·‘賢’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보현십원가>가 ‘부처’만을 노래하고 있을 뿐, 보살에 관한 시어조차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보현십원송>의 특징적인 국면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현행원품」의 경우는 보살을 언급하고 있지만 <보현십원송>처럼 부처와 차등을 두어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인용문 (2)의 밑줄 친 부분은 새로 추가된 시구로,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를 예경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¹¹⁾ 이 작품뿐만 아니라 <칭찬여래송>·<광수공양송> 또한 각 행원의 ‘이유’는 최행귀가 새로 지은 부분에 해당한다. 칭찬의 이유로 제시된 ‘塵沙化’·‘刹土風’과, 법공양의 이유인 ‘心常切’·‘力漸增’은 「보현행원품」 및 해당 향가에 없는 내용인 것이다.¹²⁾ <보현십원가>는 행원의 내용과 그 실천만을 강조하고 있는 「보현행원품」과 달리, 각 행원의 이유 내지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예경제불가>~<광수공양가>의 세 작품만 각 행원의 ‘이유’에 관한 노랫말이 없다. 그러므로 최행귀는 이러

10) 정상균, 앞의 논문, 40쪽에서는, “최행귀가 ‘佛’이나 ‘佛陀’라는 어휘보다도 ‘空王’이라는 어휘를 선택했던 이유는 최행귀가 <예경제불가>를 한역함에 있어 선택한 율시의 압운이 [aj] 음으로 정해진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여, 시어의 교체를 율시의 압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11) 김상일, 앞의 논문, 49쪽.

12) 참고로, <광수공양송>의 경련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중생을 건지고 그 고통 대신할수록 이 마음 항상 간절해지고(攝生代苦心常切)/ 만물을 이롭게 하고 수행할수록 힘은 점점 불어갑니다.(利物修行力漸增)”

한 점을 미흡하게 여기고, 다른 작품들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행원의 이유에 관한 시구를 새로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원의 ‘이유’ 외에도, <칭찬여래송>에서는 추가된 내용이 보다 확대되어 나타난다.

- | | |
|--|---|
| <p>(3) ㉠今日部伊冬衣
南无佛也白孫舌良衣
无盡辯才叱海等
一念惡中涌出去良
塵塵虛物¹³⁾叱邀呂白乎隱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際于萬隱德海盼
㉡間毛¹⁴⁾冬留讚伊白制
隔句 必只一毛叱德置
毛等盡良白手隱乃兮</p> | <p>오늘 대중들의
‘나무불이여’ 사된 혀에
無盡 辯才의 바다
한 순간에 솟어나거라.
티끌 티끌마다 虛物에 (둘러) 뒀신
공덕의 몸을 대하여
끝없는 덕의 바다를
설 새 없이 기리고자.
아아, 비록 한 터럭의 덕도
못 다 이르네.</p> |
| <p>(4) ㉢遍於佛界罄丹衷
一唱南无讚梵雄
辯海庶生三寸抄
㉣言泉希涌兩唇中
㉤稱揚覺帝塵沙化
㉥頌詠鑿王刹土風
縱未談窮一毛德
㉦此心直待盡虛空</p> | <p>부처의 세계에 두루 온 정성을 다하여
한결같이 ‘나무’를 부르며 부처님을 기리네.
변재의 바다는 세치 혀끝에서 끝없이 생겨나고
말의 샘물은 두 입술 사이에서 멀리 솟구치네.
부처님이 티끌 세계 교화시킨 것을 칭송하고
보살들이 지방 국토 감화시킨 것을 송영하네.
한 터럭만큼의 덕도 다 말하지 못했지만
이 마음은 오직 허공계 다할 때까지 기다릴 뿐.</p> |

인용문 (3)·(4)는 <칭찬여래가>·<칭찬여래송>을 옮긴 것으로, 전자의

13) 이 노랫말에 대해, 양주동·김완진은 해독이나 해석 없이 그대로 옮겨 놓았다. 최근의 박재민은 ‘세계의 모든 것들’로, 김지오는 ‘刹刹’의 다른 표현으로 보고 있다.
14) 이 ‘間毛’는 그동안 ‘間王’으로 알려져 왔고,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그 해독 및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월정사본 『균여진』을 근거로 ‘間王’이 ‘間毛’의 탈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주, 「균여 향가와 한역시 그리고 보현행원품」, 『구결학회 발표논문집』 40, 구결학회, 2010, 168~170쪽에 자세 히 서술되어 있다.

1~4행, 5~8행, 9~10행은 각각 후자의 1~4구, 5~6구, 7~8구와 대응된다. 인용문을 통해, <칭찬여래송>은 ‘칭찬’의 현장성과 끝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이 삭제되고, 대신 ㉢~㉤의 시구가 새로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과 ㉤은 칭찬의 자세에 관한 내용이고 ㉣은 바로 앞 시구의 내용을 부연한 것이다.

그런데 ㉢의 ‘丹衷’은 이와 유사한 시어가 다른 작품들에서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곧 <광수공양송>의 ‘至誠’(1구), <참회업장송>의 ‘丹誠’(6구), <청불주세송>의 ‘丹懇’(8구), <보개회향송>의 ‘至心’(7구), <총결무진송>의 ‘一心’(7구) 등이 그것으로, 화자는 이들 시어를 통해 각 행원의 실천에 대한 굳은 다짐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¹⁵⁾ 이러한 ‘丹衷’·‘丹誠’·‘至心’, 즉 ‘정성’의 강조는 <보현십원가>와 「보현행원품」에 없는, <보현십원송>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처 외에도 ‘칭찬’의 대상에 보살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칭찬의 이유로 각각 티끌세계의 교화와 시방국토의 감화를 들고 있다. 이들 시구는 인용문 (3)의 5~8행과 관련이 있지만, 향가가 부처를 ‘공덕의 몸’으로 표현한 뒤, 칭찬의 대상이 ‘功德身’의 ‘德海’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칭찬여래가>가 부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처가 ‘공덕’ 그 자체임을 보여주고 있음에 반해, <칭찬여래송>은 부처와 보살을 각각 ‘覺帝’·‘醫王’으로 표현한 뒤, ‘風化’라는 칭찬의 이유이자 공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행귀는 균여와 달리 보살의 공덕 또한 중시하고 있으며, 공덕의 효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 迷悟同體叱 미혹됨과 깨달음이 한 몸이라는
緣起叱理良尋只見根 연기의 이치에서 찾아보면

15) 참고로, <참회업장송>의 제6구와 <청불주세송>의 제8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온 정성 다할 뿐 어찌 태만하겠는가(罄竭丹誠豈墮慵).” “어찌 온 정성 다해 이 세상에 머물기를 빌지 않으리(盍傾丹懇乞淹延).”

㉠佛伊衆生毛叱所只 吾衣身不喻仁人音有叱下呂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 得賜伊馬落人米无叱昆 於內人衣善陵等沙 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 後句 伊羅擬可行等 嫉妬叱心音至刀來去	부처와 중생 두루 내 몸 아닌 남 있으리. 닦으심은 모두 나의 닦을 것인데 얻으신 것마다 남이 없으니 어찌 남의 선근들이라 아니 기뻐함 두오리까. 아아, 이리 여겨 가면 질투의 마음 이르러 올까.
---	--

(6) 聖凡眞妄莫相分 同體元來普法門 ㉡生外本無餘佛義 我邊寧有別人論 ㉢三明積集多功德 六趣修成少善根 他造盡皆爲自造 摠堪隨喜摠堪尊	성인과 범부, 진심과 망심을 구분하지 말라. 부처님의 넓은 가르침 안에서는 원래 한 몸이라네. 중생 외에 부처 뜻 본래 없으니 나와 남이 다르다고 어찌 말할 수 있으리. 삼명(성문·연각·보살)은 많은 공덕을 쌓았고 육취의 중생은 적은 선근을 닦았으나 남이 짓는 것 모두 내가 짓는 것이니 모두 따라 기뻐하고 모두들 존경하리.
--	--

인용문 (5)의 <수희공덕가>는 7~8행을 제외한 모든 노랫말이 「보현행원품」에 전혀 없는 내용이다. 「보현행원품」의 수희공덕원은 여래·중생·성문·벽지불·보살의 공덕을 “我皆隨喜”한다는 서술로 일관하고 있는데, <수희공덕가>의 7~8행은 반복되는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리고 1~6행과 9~10행은 수희공덕원에 없는 수희의 ‘근거’와 수희의 ‘결과’를 노래하고 있다.

<수희공덕송>의 경우는, <수희공덕가>의 구성 및 내용을 따르면서도 향가의 ‘迷悟’(1행)·‘緣起’(2행)·‘嫉妬’(10행)의 노랫말을 각각 ‘聖凡’(1구)·‘普法門’(2구)·‘尊’(8구)의 시어로 교체하고 있다. 또한 수희의 ‘결과’를 삭제하고, 수희의 구체적인 대상인 ㉢을 새로 추가하고 있다. 인용문 (6)의 ㉢은 기존의 논의에서 “세 통찰력을 쌓으매 공덕은 늘어나나/ 여섯 세계가 닦은 대로 이루어지매 善根은 줄어갑니다.”¹⁶⁾ 또는 “세 가지 밝은 지

16) 최철·안대회 역주, 앞의 책, 69쪽.

혜 많은 공덕 쌓아서며/ 여섯 갈래 태어남은 님은 선근 적어서네.”¹⁷⁾라고 번역되었는데, 이들 번역은 사실 誤譯에 해당한다.

이 경련은 최행귀가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수희공덕원의 “저 시방 일체세계의 육취 사생 일체 종류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내지 한 티끌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시방삼세의 일체 성문과 벽지불인 유학 무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 고행을 닦아서 무상정등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기뻐하는 것이다.”¹⁸⁾를 시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련의 ‘三明’·‘六趣’는 ‘통찰력’·‘밝은 지혜’나 ‘여섯 세계’가 아닌, 각각 수희공덕원의 ‘성문·벽지불·보살’과 ‘육취의 일체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희공덕가>가 경문의 ‘여래·중생·성문·보살·벽지불’을 구별 없이 모두 ‘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 <수희공덕송>은 수희의 대상을 성문·벽지불·보살과 육취 중생이라는 두 부류로 구분한 뒤, 전자에 ‘많은 공덕’을, 후자에는 ‘적은 선근’을 연결시키고 있다. 수희의 대상에 ‘여래의 공덕’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듯 <수희공덕송>의 경련은 내용 및 표현뿐만 아니라 그 의미 내지 지향에 있어서도 향가와 차이가 있는데, 함련 또한 <수희공덕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희공덕가>는 수희의 근거로 ‘迷悟同體’라는 ‘緣起의 이치’를 제시한 뒤, 인용문 (5)의 ㉠에서 ‘부처와 중생이 모두 나’라는, 분별을 초월하는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수희공덕송>의 함련은 중생 이외에는 ‘부처의 뜻’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곧 부처의 입장에서는 나와 남이 모두 중생일 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함련은 나와 남을 포함한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고 있어, <수희공덕가>의 분별 초월의 의식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김상일, 앞의 논문, 53쪽.

18) “彼十方一切世界, 六趣四生, 一切種類, 所有功德, 乃至一塵, 我皆隨喜. 十方三世, 一切聲聞, 及辟支佛, 有學無學, 所有功德, 我皆隨喜. 一切菩薩, 所修無量難行苦行, 志求無上正等菩提, 廣大功德, 我皆隨喜.” 광덕 율감·박성배 강의, 『미국에서 강의한 화엄경 보현행원품』, 도피안사, 2008, 137~138쪽.

(7) 彼仍反隱	저 넓은
法界惡之叱佛會阿希	법계의 佛會에
吾焉頓叱進良只	나는 모두 나아가
法雨乙乞白乎叱等耶	법우를 빌 것이라.
無明土深以埋多	무명토 깊이 묻어
煩惱熱留煎將來出未	번뇌열로 볶여 옴에
善芽毛冬長乙隱	善芽 자라지 못한
衆生叱田乙潤只沙音也	중생의 밭을 적시기 위함이라.
後言 菩提叱菓音鳥乙反隱	아아, 보리의 열매 영그는
覺月明斤 秋察羅波処也	覺月 밝은 가을밭이여.
(8) ①佛陀成道數難陳	부처의 성도하심 헤아리기 어려우나
我願皆趨正覺因	내 소원은 오직 정각의 因을 따르는 것.
甘露洒消煩惱熱	감로는 번뇌의 열을 식혀주고
戒香熏滅罪愆塵	계율의 향내 맡으면 죄와 허물의 먼지 없어지네.
陪隨善友瞻慈室	좋은 벗 모시고 자비의 집 우러르며
勸請能人轉法輪	능인이 법 바퀴 굴리시기를 권하고 청하네.
②雨寶遍沾沙界後	법보의 비가 두루 사바세계를 적신 뒤에
更於何處有迷人	다시 또 어느 곳에 미혹된 이가 있겠는가.

위의 인용문 (7)은 <보현십원가>의 제6수인 <청전법륜가>이고, 인용문 (8)은 <청전법륜송>을 옮긴 것이다. <청전법륜가>는 請法의 대상 및 내용, 청법의 이유, 청법 결과의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5~8행은 화자가 1~4행에서 부처께 法雨를 청한 이유가, 무명과 번뇌로 인해 선근을 기르지 못한 중생 때문임을 노래하고 있다. 9~10행의 경우는 청법의 결과로 ‘菩提의 열매’와 ‘覺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노랫말은 깨달음의 성취 또는 깨달은 경지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청법’은 부처가 이미 열반한 현실에 있어서는 佛道를 구하려는 마음, 즉 ‘발보리심’으로 볼 수 있다. 곧 이 노래는 ‘남이 바로 나’라는 <수희공덕가>와 함께 ‘발심 자체가 곧 깨달음’이라는 분별 초월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청전법륜송>은 번역시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原歌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구절이 없고, 시상 전개 또한 ‘청법의 이유→내용→대상→결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용문의 ㉠에서 보듯, 부처의 성도는 헤아리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화자는 청법의 이유가 정각의 ‘원인’을 따르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향가에서 노래했던 “중생의 받을 적시기 위함”이라는 청법의 이유가, <청전법륜송>에서는 ‘正覺因’을 따르려는 ‘我願’으로 그 지향이 축소된 것이다. 청법의 결과에 있어서도, 향가가 ‘발심은 곧 깨달음’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청법’ 자체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청전법륜송>의 ㉡은 부처의 ‘寶雨’가 ‘내린 뒤’에 미혹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청법으로 인한 ‘轉法輪’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 <예경제불송>~<청전법륜송>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역 양상의 특징적인 국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들 작품은 <보현십원가>와 달리, ‘보살’과 ‘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부처와 보살을 위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분별 초월의 역설적 표현이 약화 또는 삭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상수불학송>~<총결무진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보현십원송>에서 배제된 <보현십원가>의 내용 및 표현을 살펴볼 차례다.

3. 노랫말의 배제와 <普賢十願頌>의 성격

(9) 我伽体

皆往焉世呂修將來賜留隱
難行苦行叱願乙
吾焉頓部叱逐好友伊音叱多
身靡只碎良只塵伊去米
命乙施好尸歲史中置
然叱皆好尸卜下里
皆伽体置然叱爲賜隱伊留兮
城上人 佛道向隱心下
他道不冬斜良只行齊

우리 부처
모든 지난 세상 닦아 오신
難行 苦行의 願을
나는 모두 좇으리다.
몸이 부서져 티끌이 되어 감에
목숨을 버리는 사이에도
그렇게 함 지니니
모든 부처도 그러하신 것이로다.
아아, 佛道 향한 마음아
다른 길 아니 빗겨 가고자.

(10) 此娑婆界舍那心 不退修來迹可尋 皮紙骨毫兼血墨 國城宮殿及園林 菩提樹下成三點 衆會場中演一音 如上妙因摠隨學 永令身出苦河深	이 사바세계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발심하여 물러남 없이 닦아오던 그 자취를 찾아보니 살가죽 종이에 뼈 붓과 피 먹으로 경전을 쓰시고 살던 나라와 궁전과 동산까지 버리셨으며 보리수 아래에서 세 번의 깨달음 이룬 뒤 사부대중 모인 도량에서 일음으로 설법하셨네. 이와 같은 묘한 인연 모두 따라 배워서 고해 깊이 빠진 이 몸 영원히 건지고자.
---	--

인용문은 <보현십원가>의 제8수인 <상수불학가>와 그 譯詩인 <상수불학송>이다. 위 (9)의 밑줄 친 부분은 <상수불학송>에서 배제된 노랫말을 가리킨다.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상수불학가>의 5~10행은, ‘隨學’의 대상 및 내용에 관한 1~4행에 이어, 수학의 방법·이유와 다짐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5~8행은 「보현행원품」의 문맥과 차이가 있는데, 화자가 해야 할 ‘隨學’의 방법인 5~6행은 경문에서는 비로자나불이 과거에 실천한 행위인 것이다. ‘수학’의 근거 내지 이유로 제시된 8행 또한 경문은 법계의 모든 부처도 비로자나불과 같은 난행·고행을 겪었다는 서술로 되어 있다.¹⁹⁾ 곧 <상수불학가>는 「보현행원품」과 달리, ‘수학’의 이유를 설정하고, 그 근거로 “모든 부처도 그러하신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랫말은 화자가 ‘수학’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만, 한편으로는 ‘수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하신 것이로다’는 身命을 아끼지 않는 ‘수학’이 비로자나불뿐만 아니라 법계의 모든 부처가 한 일을 가리키면서, 이와 동시에 모든 부처가 ‘수학’으로 인해 지금의 부처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노래의 ‘수학’은 ‘부처가 한 일’이자, ‘부처가 되는 일’인 것이다. 그리하여 <상수불학가>는 ‘佛道’ 즉 부처가 되는 길만을 가졌다는 화자의 다짐으로 끝나고 있다.²⁰⁾

19) “이와 같이 하여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 불찰의 모든 미진 중에 계시는 일체 부처님께서도 또한 다 이와 같이 하여 염념 중에 내가 다 따라 배우느니라.(如是, 盡法界, 虛空界, 十方三世, 一切佛刹, 所有塵中, 一切如來, 皆亦如是, 於念念中, 我皆隨學)” 광덕 율감·박성배 강의, 앞의 책, 161쪽.

<상수불학송>은 향가의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고, 비로자나불의 과거 행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인용문 (10)의 합련·경련은 비로자나불이 과거에 행했던 난행·고행·成道轉法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시구는 향가에 없던 것으로, 역자는 「보현행원품」의 관련 부분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다.²⁰⁾ 그리고 미련에서 화자는 비로자나불의 ‘妙因’을 따르고 배워 고해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향가의 ‘불도 향한 마음’에서, ‘고해를 벗어나는 몸’으로 화자의 지향이 달라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상수불학송>은 ‘부처가 되는 일’과 관련된 내용 및 표현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향순중생송> 또한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 ‘부처’와 관련된 노랫말이 삭제되어 있다.

(11) 覺樹王焉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

大悲叱水留潤良只

不冬萎玉內乎留叱等耶

法界居得丘物叱丘物叱爲乙吾置同生同死念念相續無間斷仏体爲尸如敬叱好叱等耶

打心 衆生安爲飛等

仏体頓叱喜賜以留也

覺樹王은

미혹함을 뿌리 삼으신 것이라

大悲의 물로 젖어서

아니 시드는 것이더라.

법계 가득 구물구물

하거늘 나도 同生同死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중단 없이

부처님께 하듯이 공경하리라.

아아, 중생 편안하다면

부처 모두 기뻐하실 것이로다.

(12) 樹王偏向野中榮

欲利千般萬種生

花果本爲賢聖體

幹根元是俗凡精

보리수왕이 광야에서 무성하게 꽃피운 것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했기 때문.

꽃과 열매는 성인과 현자의 몸이고

줄기와 뿌리는 속인과 범부의 정기라네.

20) 김기중, 「<보현십원가>의 구조와 주제의식」, 『고전문학연구』 44, 한국고전문학회, 2013, 19쪽.

21) 경문의 관련 구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剝皮爲紙, 折骨爲筆, 刺血爲墨, 書寫經典. …(中略)… 何況王位, 城邑聚落, 宮殿園林, 一切所有 …(中略)… 乃至樹下, 成大菩提 …(中略)… 衆會道場, 處於如是種種衆會, 以圓滿音, 如大雷震, 隨其樂欲, 成熟衆生.”

慈波若洽靈根潤
覺路宜從行業成
恒順遍教群品悅
可知議佛喜非輕

자비의 물줄기는 영근을 흠뻑 적시는 듯하고
깨달음의 길은 행업 따라 이뤄지네.
항상 따르고 두루 가르치면 모든 중생 기뻐하고
부처님의 기쁨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으리.

위의 (11)과 (12)는 <항순중생가>·<항순중생송>을 옮긴 것이다. <항순중생가>는 隨順의 이유, 대상 및 방법, 결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10행에서 ‘수순’은 부처가 ‘기뻐할 일’로 제시되어 있다. <항순중생송>은 인용문 (11)의 밑줄 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함련과 경련 및 제7구의 내용을 새로 추가하고 있다. 함련은 경문의 ‘나무의 비유’²²⁾를 시화한 것이고, 경련은 부처의 자비와 중생의 ‘行業’을 ‘수순’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깨달음의 길은 행업 따라 이뤄지네”라고 하여, 부처의 자비보다 중생 각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생을 부처처럼 공경한다는 향가의 주지는, 제7구에서 ‘恒順遍教’, 즉 부처의 가르침을 항상 따르고 그것을 중생에게 두루 가르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있다. 최행귀는 ‘수순’의 의미를 향가의 ‘同生同死’·‘공경’이 아닌, 중생에 대한 ‘遍教’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8구의 “부처님의 기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으리”를 통해, 이 ‘편교’는 ‘항순’과 함께 부처가 ‘기뻐할 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항순중생송>에서 배제된 노랫말은 <상수불학송>과 마찬가지로, 모두 ‘부처’와 관련된 것이라 하겠는데, 한역되지 않은 노랫말 중 2행과 8행은 중생이 곧 부처라는 명제의 다른 표현이다. <항순중생가>에서 ‘覺樹王’ 즉 ‘깨달음’과 ‘미혹함’은 각각 부처와 중생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부처에게 하듯이 중생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중생이 바로 부처

22) “비유하건대 …(중략)… 생사광야의 보리수왕도 역시 그러하니, 일체 중생으로 나무뿌리를 삼고 여러 불보살로 꽃과 과실을 삼거든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즉시에 여러 불보살의 지혜의 꽃과 과실이 성숙되느니라.(譬如 …(中略)… 生死曠野, 菩提樹王, 亦復如是. 一切衆生, 而爲樹根, 諸佛菩薩, 而爲華果, 以大悲水, 饒益衆生, 則能成就, 諸佛菩薩智慧華果)” 광덕 옮김·박성배 강의, 앞의 책, 167~168쪽.

라는 사실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13) 皆吾衣修孫	모든 나의 님은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	일체 善根을 모두 돌려
衆生叱海惡中	중생의 바다에
迷反群无史悟內去齊	미혹한 무리 없이 깨닫게 하고자.
仏体叱海等成留焉日尸恨	부처의 바다 이룬 날은
懺爲如乎仁惡寸業置	참회하던 惡業도
法性叱宅阿叱寶良	법성 집의 보배라.
舊留然叱爲事置耶	예로부터 그러한 일이로다.
病吟 礼爲白孫隱仏体刀	아아, 예경하는 부처님도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	나의 몸일 뿐 남 있으리.

(14) 從初至末所成功	처음부터 끝까지 이룬 모든 공덕을
廻與舍靈一切中	일체의 중생에게 모두 돌려주리라.
咸覲得安離苦海	저마다 안락 얻어 고탈을 떠나려면
摠斯消罪仰眞風	죄를 씻고 참된 가르침을 우러르라.
同時共出煩塵域	같은 때에 번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異體成歸法性宮	만물이 모두 법성궁에 돌아가기를.
我此至心廻向願	나의 이 지극한 회향의 서원은
盡於來際不應終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치지 않으리.

위의 <보개회향가>는 ‘회향의 대상 및 목적→ 이유→ 결과’의 내용 전개를 보인다. 인용문 (13)의 밑줄 친 부분 가운데, 5~7행은 내가 지은 ‘악업’조차도 참회하여 중생에게 회향한다면 부처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는 내용이다. 그 근거로 제시된 8행의 “예로부터 그러한 일이로다”는 <상수 불학가>의 “모든 부처도 그러하신 것이로다”와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노랫말은 화자가 회향해야 하는 이유이자, 부처 또한 회향을 통해 지금의 부처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구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예경의 대상이 되는 ‘부처’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듯 한역되지 않은 향가의 노랫말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에 반해, <보개회향송>은 죄를 소멸하고 참된 가르침을 따라야 고해를 떠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회향의 결과가 아닌, “나의 이 지극한 회향의 서원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치지 않으리”라고 하여, 화자의 굳은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보개회향송>은 <상수불학송>처럼 고해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순중생송>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개회향가>의 결구는 분별 초월의 사유를 드러내고 있는 <수회공덕가>·<청전법륜가>·<항순중생가>와 연결되고 있어 주목된다. ‘남이 바로 나’ ‘발심이 곧 깨달음’ ‘깨달음의 뿌리는 미혹함’은 해당 행원의 근거이자, ‘부처는 나의 몸일 뿐’이라는 <보개회향가>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남이 나이고, 발심과 미혹이 깨달음이라는 역설은 ‘내가 부처’라는 선언으로 귀결되는 것이다.²³⁾

여기에서, <보현십원송>이 노랫말의 배제와 앞의 2장에서 지적했던 한역 양상의 특징들을 보이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보현십원송>은 ‘부처의 일’을 표현한 노랫말과 분별 초월의 역설적 내용을 모두 배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구를 추가하여 향가에서 드러나지 않던 ‘보살’을 부각시키고 부처와 보살을 위계적인 관계로 제시하고 있다. 곧 <보현십원송>은 최행귀가 번역시임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일’ 즉 ‘성불’을 노래하고 있는 <보현십원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현십원송>의 특징적인 국면은 <보현십원가>와 다른 주제의식 내지 시적 지향을 드러내고자 한 최행귀의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행귀의 의도 내지 지향은 아래에 인용한 <총결무진송>의 밑줄 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15) 生界盡尸等隱 중생계가 다한다면

23) 김기종, 앞의 논문, 21쪽.

吾衣願盡尸日置仁伊而也	나의 원 다할 날 있으리라.
衆生叱邊衣于音毛	중생의 깨움이
際毛冬留願海伊過	끝 모를 願海이고
此如趣可伊羅行根	이같이 나아가 이렇게 행하면
向乎仁所留善陵道也	향한 곳마다 선업의 길이로다.
伊波普賢行願	이 뿐 보현행원
又都佻叱事伊置耶	또 모두 부처의 일이도다.
阿耶 普賢叱心音阿于波	아아, 보현의 마음 따라
伊留叱餘音良他事捨齊	이것 밖의 다른 일 버리고자.

(16) 盡衆生界以爲期	중생계가 다할 것을 기약으로 삼았으니
生界無窮志豈移	중생계가 무궁해도 그 뜻 어찌 바꾸리.
師意要驚迷子夢	스님의 뜻은 미혹한 중생 꿈을 깨침에 있고
法歌能代願王詞	법의 노래는 원왕의 말씀에 대신하네.
將除妄境須吟誦	迷妄의 경계를 없애려면 모름지기 이를 외워야 하고
欲返眞源莫厭疲	참된 근원 돌아가려면 싫증내는 마음 없어야 하네.
<u>相續一心无間斷</u>	한결같은 마음으로 쉼 없이 외운다면
<u>大堪隨學普賢慈</u>	보현보살의 자비심을 따라 배울 수 있으리.

위의 (15)·(16)은 향가와 한역시의 마지막 작품인 <총결무진가>·<총결무진송>을 읊긴 것이다. 인용문 (16)의 수련·함련은 각각 향가의 1~2행과 3~4행에 대응되고, 경련·미련은 최행귀가 새로 지은 것이다. 함련의 경우는 직접적인 대응은 아니고, <보현십원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향가의 3~4행을 수용한 것이다. 이 함련은 <보현십원가>에 대한 비평 내지 찬사로, 최행귀는 균여의 창작 의도가 중생을 迷夢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 <보현십원가>는 「보현행원품」을 대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인용문을 통해 <총결무진가>의 5~10행은 한역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7~8행은 ‘부처의 일’을 노래하고 있으며, 9~10행에서 화자는 보현보살의 마음을 따라 오직 ‘부처의 일’만을 추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 노랫말은 그 이전의 작품들에서 노래한 보현행원 모두가 ‘부처의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총결무진송>

의 미련은 <보현십원가>와 <보현십원송>을 ‘一心’으로 끊임없이 외워 보현보살의 자비심을 배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총결무진가>와 마찬가지로 보현보살을 따를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향가에서 ‘普賢心’을 따르는 것이 ‘부처의 일’을 위한 방편인데 비해, <총결무진송>의 ‘普賢慈’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결국, 최행귀의 의도 내지 지향은 ‘普賢慈’로 표현하고 있는 ‘보살의 길’에 있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의도로 인해 앞에서 살펴본 한역 양상의 특징들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현십원가>가 청자들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부처가 되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면, <보현십원송>은 독자들이 보살의 길을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현십원송>은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보현십원가>와 다른 별개의 작품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의식의 차이는 사실, 두 작품의 서문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다. <보현십원가> 서문에서 균여는 “이제 쉬 알 수 있는 비근한 일을 바탕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심원한 宗旨를 깨우치게 하고자 열 가지 큰 서원의 글에 의지하여 열한 수의 거친 노래를 지으니, 못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몹시 부끄러운 일이나 모든 부처님의 마음에는 부합될 것을 바란다.”²⁴⁾라고 하였으며, 최행귀는 자신이 번역한 시를 통해 독자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씬 없이 외워 먼저 보현보살의 흰 코끼리를 보고, 입에서 입으로 그침 없이 읊어 그 뒤에 龍華會에서 미륵보살을 만나기”²⁵⁾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諸佛의 마음’이, 후자에서는 ‘보현보살·미륵보살과의 만남’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보현십원가>의 ‘부처의 일’과 <보현십원송>의 ‘보살의 길’은 각각 균여와 최행귀의 이러한 창작 의도 내지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4) “今托易知之近事，還會難思之遠宗，依二五大願之文，課十一荒歌之句，慙極於衆人之眼，冀符於諸佛之心。” 최철·안대회 역주, 앞의 책, 45쪽.

25) “所冀，…(中略)… 心心續念，先瞻象駕於普賢，口口連吟，後值龍華於慈氏。” 같은 책, 65쪽.

4. 맺음말

지금까지 <보현십원송>에서 배제된 노랫말과 새로 창작된 시행을 중심으로, <보현십원가> 한역 양상의 특징과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현십원송>은 부처만을 노래하고 있는 <보현십원가>와 달리 ‘보살’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覺帝·醫王’ ‘聖·賢’ 등과 같이 부처와 보살을 위계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丹衷’·‘至心’ 등의 시어를 통해 고해에서 벗어날 것을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고해를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분별 초월의 역설적 표현 및 ‘부처의 일’과 관련된 노랫말들을 모두 배제한 뒤, “한결같은 마음으로 쉼 없이 외운다면/ 보현보살의 자비심을 따라 배울 수 있으리”라는 시행으로 작품 전체를 끝맺고 있다.

그 결과, <보현십원송>은 내용 및 표현뿐만 아니라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보현십원가>와 차이를 보인다. <보현십원가>가 청자들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면, <보현십원송>은 독자들이 보살의 길을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보현십원송>은 <보현십원가>와 다른 별개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보현십원송>의 특징적인 국면은 최행귀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그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보현십원가>의 ‘我卽佛’의 선언에 대해 불만 또는 반감을 가졌던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감의 배경 내지 이유는 그 해명이 어렵다고 하겠는데, 최행귀의 생애 및 사상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기록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⁶⁾ 다만

26) 최행귀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 「열전」 ‘崔彥擣傳’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유일하다. “행귀도 역시 吳越國에 유학하였는데 그 나라 왕이 秘書郎으로 임명하였다. 후에 본국에 돌아와서 광종을 섬겨 총애 받는 신하로 되었다가 죄에 걸려 사형을 당하였다.(行歸亦遊吳越國 其王授秘書郎 後還本國 事光宗爲倖臣 坐死)”

‘학림학사’인 최행귀의 불교·佛陀에 대한 이해 수준, 또는 당시의 시대적·정치적 상황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²⁷⁾ 이러한 문제와,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보현십원송>의 구조 분석과 시적 지향의 파악은 추후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27) 지방의 군소호족을 제압하여 전제왕권을 이루려고 한 광종의 입장에서, <보현십원가>의 ‘我卽佛’은 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나친 억측일 수 있지만, 당시 광종의 ‘倖臣’이자, 평소 균여를 존경하고 있던 최행귀가, 균여에 대한 광종의 오해를 막기 위해, <보현십원가>를 번역하고 ‘부처의 일’과 관련된 노랫말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김종진, 「균여가 가리키는 달: 보현십원가의 비평적 해석」, 『정토학연구』 19, 한국정토학회, 2013, 124~126쪽에서도 필자의 이러한 추정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광덕 옮김·박성배 강의, 『(미국에서 강의한) 화엄경 보현행원품』, 도피안사, 2008.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157~210쪽.
- 양주동, 『(增訂) 고가연구』, 일조각, 1983, 673~866쪽.
- 양희철, 『고려향가연구』, 새문사, 1988.
- 이기백 편, 『고려광종연구』, 일조각, 1981.
- 임기중 외,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 최철·안대회 역주, 『역주 균여전』, 새문사, 1986.
-
- 김기중, 「향가 <보현십원가>의 표현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35, 한국시가학회, 2013, 5~31쪽.
- 김기중, 「<보현십원가>의 구조와 주제의식」, 『고전문학연구』 44, 한국고전문학회, 2013, 3~30쪽.
- 김상일, 「<보현십원가>의 漢譯詩 <보현십원송>에 대하여」, 『동악한문학논집』 9, 동악한문학회, 1999, 39~61쪽.
- 김선기, 「최행귀의 향가론 고찰」, 『한국언어문학』 38, 한국언어문학회, 1997, 145~158쪽.
- 김성주, 「균여 향가와 한역시 그리고 보현행원품」, 『구결학회 발표논문집』 40, 구결학회, 2010, 168~174쪽.
- 김지오, 「균여전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혜은, 「<보현십원가>의 譯詩 과정과 번역 의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재민, 「구결로 본 보현십원가 해독」,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서철원, 「균여의 작가의식과 <보현십원가>」, 『한국고전문학의 방법론적 탐색과 소묘』, 역락, 2009, 115~198쪽.
- 신명숙, 「서정과 교술의 변주 <보현십원가>」, 고가연구회 편, 『향가의 수사와 상상력』, 보고서, 2010, 133~159쪽.
- 윤태현, 「<보현십원가>의 문학적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30, 한국어문학연구회, 1995, 207~240쪽.
- 이진, 「최행귀 譯詩 고찰」, 『동경어문논집』 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문학회, 1984, 151~176쪽.
- 장일규, 「고려 광종대 유교적 정치이념과 崔行歸」, 『한국학논총』 3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551~578쪽.
- 정상균, 「최행귀론」, 『국어교육』 4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4, 25~44쪽.
- 정소연, 「<보현십원가>의 漢譯양상 연구- 향가와 한역시의 구조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87~128쪽.
- 조연숙, 「최행귀의 한역시 연구」, 『고시가연구』 16, 한국고시가학회, 2005, 279~304쪽.
- 최래옥, 「균여의 보현십원가 연구」, 『국어교육』 29, 한국어교육학회, 1976, 11~33쪽.
- 최연식, 「균여 화엄사상연구- 敎判論을 중심으로」, 1999,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투고일 : 2014 1월 1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The Chinese Translated “Poetry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 by Choi Hang Gwi and Its Characteristics

Kim, Ki-jong

This article reviewed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translation of “Poetry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 from the different perspective from existing discussion, while considering the problems of previous studies. The discourse up to now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lthough “Songs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 follow the construct and contents of “Poetry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 basically, detailed contents and expressions are different. Especially, the former emphasizes ‘Bosal’ unlike Hyangga which praises Buddha only, and explains the relationship of Buddha and Bosal as hierarchical relationship such as ‘Gakje and Euiwang (覺帝·醫王)’ ‘Seong and Hyeon (聖·賢).’ Additionally, through poetic language such as ‘Danchung(丹衷)’ and ‘Jisim(至心),’ the speaker orients to the escape from the bitter human world and it also shows at the same time that escaping from the bitter world is very difficult. Deleting all verses related to ‘works of Buddha’ and paradoxical expressions of discernment and transcendence, it closes the work with the verse such as “If you memorize it without pause with unchanging mind, you may be able to learn the mercy of Bohyeon-bosal.”

Consequently, “Songs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 is different from “Poetry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 not only in contents and expression but also in thematic consciousness. While “Poetry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 tells audience that everybody can and should be Buddha, “Songs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 emphasizes that everybody goes toward the way of Bosal and continuous efforts and sincerity are needed for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me, “Songs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 is a separate work totally different from “Poetry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

Key words : Poetry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普賢十願頌), Songs of The Buddhist Saint’s Ten Wishes(普賢十願歌), Choi Hang Gwi(崔行歸), Gyunyeo(均如), Hyangga(鄉歌), translated into Chinese poetry